

# FIFA “김민재는 바위같은 수비수”



이탈리아 프로축구 나폴리의 수비수 김민재(왼쪽)가 지난 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요한 크라위프 아레나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 리그 A조 3차전에서 아약스(네덜란드)를 상대로 공을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축구대표팀과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맹활약하는 '수비수' 김민재(26)를 향해 국제축구연맹(FIFA)이 찬사를 보냈다.

FIFA는 24일(현지시간) 트위터 등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김민재를 조명했다.

게시된 이미지는 김민재가 합성된 유니폼을 입고 있다. 왼쪽은 푸른색 나폴리, 오른쪽은 붉은색 축구대표팀 유니폼이다.

FIFA는 “바위 같은 수비, 리그 최고, 카타르 준비 완료”라고 적었다.

국제축구연맹, SNS서 찬사 “리그 최고·카타르 준비 완료”

워낙 단단한 수비를 펼쳐 이탈리아 세리에A에 데뷔하자마자 리그 최고의 수비수로 인정받은 김민재가 곧 2022 카타르 월드컵 도전을 앞뒀다는 뜻이다.

김민재는 지난 7월 나폴리에 입단하며 유럽 5대

리그인 세리에A 무대에 섰다.

지금까지 세리에A 11경기 중 10경기에 출전해 모두 풀타임을 소화했다.

김민재가 가세한 나폴리는 패배를 잊었다.

올 시즌 공식전에서 개막 15경기 연속 무패(13승 2무)를 달리고 있다.

나폴리는 세리에A에서 9승 2무(승점 29)로 1위,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A조에서 4전 전승(승점 12)으로 역시 1위다. /연합뉴스

# 광주FC ‘기록의 시즌’

홈 10연승·홈 전 구단 상대 승리  
16경기 연속 골 행진 구단 최다  
최단기간 우승·최다승·최다승점

프로축구 광주FC는 ‘기록의 시즌’을 보냈다. 광주는 지난 24일 끝난 K리그 2022 대상 시상식에서 ‘9관왕’에 오르면서 화려하게 시즌 피날레를 장식했다.

올 시즌 K리그2는 광주의 독무대였다. 광주는 ‘기록 행진’을 펼치면서 우승으로 다이렉트 승격에 성공했다.

특히 홈에서 강했던 광주는 홈 10연승을 달리면서 홈팬들을 열광시켰다. K리그2 시도민구단 홈 최다연승, 홈경기 전 구단 상대 승리 기록도 작성했다.

16경기 연속 골 행진을 펼치면서 구단 최다 연속 득점 기록을 만든 광주는 K리그2 역사도 바꿨다.

4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역대 최단 기간 우승을 이뤘고, 25승 11무 4패로 올 시즌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최다승·최다승점 기록도 25승 86점으로 새로 갱신되었다.

한 시즌을 마무리하는 시상식에서도 광주는 ‘챔피언’의 면모를 보여줬다.

엄지성이 영플레이어상 수상자로 가장 먼저 단상에 오른 뒤 베스트 11 시상에서 6명의 이름이 호명됐다.

엄지성이 우측 미드필더 부문 베스트11 주인공으로 다시 한번 시상대에 섰고, 골키퍼 김경민, 수

비수 안영규·두현석, 미드필더 박한빈·이순민도 베스트 11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광주의 무대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다.

사령탑을 맡은 첫째 광주 1위 직주를 이끈 이정호 감독이 이번 없이 ‘감독상’ 수상자로 단상에 올라 “광주FC 선수단과 나는 큰 꿈을 안고 K리그 1에 도전한다”고 수상 소감과 내년 시즌의 각오를 밝혔다.

여기에 올 시즌 주장으로 팀을 하나로 묶고 또 광주의 우승 발판이 된 ‘최소실점(32)’을 견인한 안영규가 MVP의 영광까지 누리면서 광주는 잔치 날을 보냈다.

그라운드에서 각종 신기록을 작성한 광주의 ‘기록 행진’은 관중석에서도 이어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31~44라운드 관중 유치 성적 및 마케팅 성과를 평가해 K리그2 제3차 플러스 스타디움상 주인공으로 광주를 선정했다.

플러스 스타디움상은 직전 기간(17~30라운드)과 비교해 유료 관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구단에 수여하는 상으로 광주는 31라운드부터 44라운드까지 진행된 홈 5경기에서 1만1197명의 관중(평균 2239명)을 유지했다. 앞선 기간 대비 평균 859명이 증가하면서 올 시즌 마지막 플러스 스타디움상을 차지했다.

특히 광주는 경남FC와의 홈폐막전이 열린 지난 9일에는 5861명이라는 올 시즌 K리그2 최다 관중 기록도 새로 작성했다.

이날 광주는 최다관중 앞에서 우승 세리머니도 펼치면서 잊지 못할 순간을 장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벤투호, 최종 평가전 상대는 아이슬란드

11월 11일 경기 화성경기장  
카타르 가기 전 마지막 점검

2022 카타르 월드컵에 나서는 벤투호의 마지막 스파링 파트너가 북유럽의 ‘다크호스’ 아이슬란드로 정해졌다.

대한축구협회는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A대표팀이 내달 11일 오후 8시 경기도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에서 아이슬란드와 평가전을 치른다고 25일 밝혔다.

대표팀이 월드컵이 치러지는 카타르로 향하기 전 치르는 마지막 평가전이다.

유럽 축구의 변방으로 여겨졌던 아이슬란드는 2016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16)에서 8강 진출의 호성적을 내며 북유럽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팀이다.

다만, 현재 아이슬란드의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은 62위로 한국(28위)보다 34계단 낮다.

아이슬란드는 이번 월드컵 본선 출전국은 아니다. 월드컵 유럽예선에서 J조 6개 팀 중 5위를 해 탈락했다.

아이슬란드는 올해 10차례 A매치를 치러 2승 6무 2패를 기록 중이다.

한국은 아이슬란드와 역대 단 한 차례 싸워 이겼다. 지난 1월 벤투호의 터키 원정에서 맞대결이 이뤄졌고 한국이 5-1 대승을 거뒀다.

지난 22일 발표된 아이슬란드 대표팀 명단에는 자국 리그 선수들이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미국 등 해외에서 시즌을 마치고 합류하는 선수들도



대한축구협회는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A대표팀이 다음 달 11일 경기도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에서 아이슬란드와 평가전을 치른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국가대표 공격수 조규성. /연합뉴스

일부 포함됐다.

아이슬란드전은 FIFA가 정한 A매치 기간이 아닌 때 열리기 때문에 벤투호는 국내파 선수들만으로 경기에 나선다.

대표팀은 오는 28일 파주 NFC(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K리그 소속 선수들 위주로 27명을 소집해 아이슬란드전과 월드컵에 대비한 훈련을 시작한다.

벤투 감독은 이번 소집 훈련에 대비해 오현규

(수원)에게 처음 태극 마크를 달아준 가운데 권창훈, 박지수, 고승범(이상 김천), 박민규(수원 FC), 조규성, 김진규(이상 전북), 엄원상(울산), 나상호(서울), 양현준(강원) 등을 호출했다.

한국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H조에 속했다. 한국시간으로 11월 24일 오후 10시 우루과이, 28일 오후 10시 가나, 12월 3일 오전 0시 포르투갈과 차례로 대결한다. /연합뉴스

# KIA 투수 장현식, 오른쪽 팔꿈치 수술

KIA 타이거즈의 ‘필승조’ 장현식이 오른쪽 팔꿈치 수술을 받았다.

KIA는 25일 “장현식이 이날 서울 세종 스포츠정형외과에서 오른쪽 팔꿈치 뼈조각 제거술 및 골극정리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장현식은 수술 부위에 대한 정밀 관찰을 위해 4일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 이어 3~4개월 동안 재활치료 및 보강 훈련을 하면서 2023시즌을 준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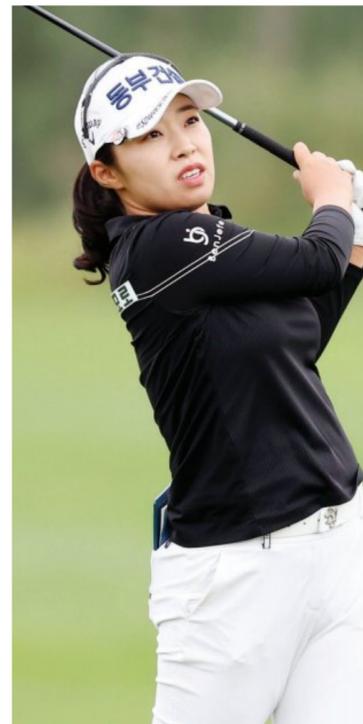
지난해 34개의 홀드를 기록하며 ‘홀드왕’에

올랐던 장현식은 올 시즌에는 부상으로 고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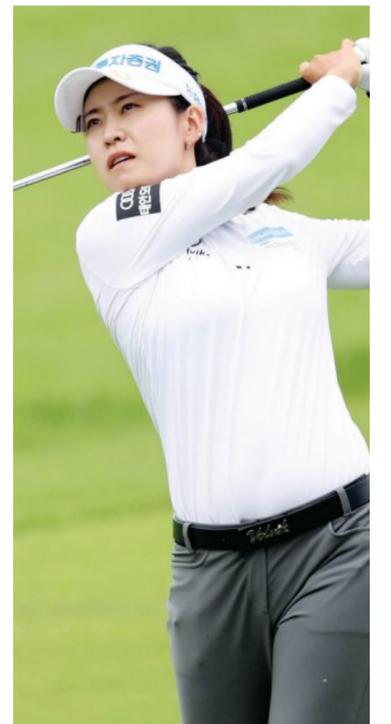
6월 30일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지난 7월 29일에도 엔트리에서 말소된 뒤 9월 10일 두산전을 통해 복귀전을 치르기도 했다.

올 시즌 54경기에서 나온 장현식은 3.12의 평균자책점으로 2승 3패 1세이브 19홀드를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수지



박민지

# 김수지·박민지 ‘가을 여왕’ 대결

SK네트웍스 클래식 출전  
9월 이후 2승 씩 ‘가을결이’

올가을에 펄펄 날고 있는 박민지와 김수지가 ‘가을 여왕’ 자리를 놓고 대결한다.

박민지와 김수지는 오는 27일부터 나흘 동안 제주 서귀포시 핀크스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SK네트웍스·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총상금 8억원)에 나란히 출전한다.

둘은 9월 이후 나란히 2차례씩 우승하며 풍성한 가을결이에 신바람을 내고 있다.

작년까지는 찬 바람이 불면 힘을 쓰지 못했던 박민지는 9월에 열린 메이저대회 KB금융 스타 챔피언십과 하이트 진로 챔피언십을 싹쓸이하면서 새로운 ‘가을 여왕’의 위력을 과시했다.

‘가을 여왕’끼리 이번 대결은 특히 상금왕 경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시즌 상금 12억6458만 원을 쌓아 김수지에 2억 5천253만원 앞선 박민지가 이 대회 우승 상금 1억 4400만 원을 손에 넣는다면 상금왕 경쟁은 박민지

의 승리로 사실상 마감된다.

김수지가 SK네트웍스·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 정상에 오른다면 남은 2개 대회에서 상금왕 경쟁은 더 뜨거워진다.

대상 경쟁도 누가 우승 트로피를 가져가느냐에 따라 구도가 바뀔다.

박민지는 최근 2개 대회를 건너뛰고 체력을 비축했다면, 김수지는 꾸준히 경기에 나서면서 실전 감각을 날카롭게 베풀었다는 점이 다르다.

박민지와 김수지는 디펜딩 챔피언 김효주라는 강력한 우승 후보를 넘어야 한다.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5차례 우승한 김효주는 KLPGA투어에서도 14차례나 정상에 올라 국내 무대에 유난히 강하다.

23일 끝난 LPGA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우승 경쟁 끝에 공동 3위를 차지한 김효주는 SK네트웍스·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 타이틀 방어로 아쉬움을 달랠다는 다짐이다.

23일 위믹스 챔피언십에서 깜짝 우승해 6년 무명 신세를 벗어던진 유호주는 내친김에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신인왕을 거의 굳힌 이예원과 유해란, 임희정, 박지영, 정윤지, 지한솔, 홍정민, 이가영 등 상금 랭킹 10명이 모두 출전한다. LPGA투어에서 뛰는 2017년, 2018년 KLPGA투어 상금왕 이정은이 초청 선수로 나선다. /연합뉴스